



표지사진 : 애광원 생활인들과의 경주 나들이. 가을 하늘 아래 다양한 표정으로 맑고, 밝게 웃고 있다.

JTS 통권 62호 2006년 11·12월

펴낸날 : 2006. 11. 3

펴낸이 : 법 루

만든이 : 김경희

도운이 : 서동우, 전성지, 현희련, 양한석
이미경, 정한정, 김애경, 유명규
장성호, 김옥희, 정유석, 김영자
이유나, 배명숙, 권상례

펴낸터 : (사)한국JTS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디자인·제작 : 신명기획 ☎02)2273-6128

인도 등게스와리 소식

4 누가 이들을 게으르다고 할 손가

북한 소식

7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소식

9 다른 세상인 것 같은데

국내소식

13 2006년 기획이벤트3

17 거제도 애광원 경주나들이

후원의 소리

21 친구를 그리며

23 친구들은 몰라요

따뜻한 이웃

25 믿음직한 아이들

활동보고 및 안내

27 인도지원사업

북한지원사업

국내사업

31 아름다운세상 저금통 후원금 현황

33 신규회원(개인, 단체)명단 · 물품후원

35 특별기부금 명단

36 한반도 수재구호금 명단

40 북한 내복보내기 기부금 명단

42 라진 · 선봉 유치원, 탁아소 결연현황

46 CMS 신청안내

누가 이들을 게으르다고 할 손가!

안민환 | 인도 JTS 마을개발 파트



지난 9월 중순 우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우기동안 손상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하여 아자드비가, 안투비가, 소라즈비가 마을에서 쉬람단을 진행하였다. 마을마다 약 일주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도로보수 쉬람단은 일부 몇 가구를 제외하고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참여하여 하나의 마을축제를 이루었다. 남녀노소 고루고루 참석한 이번 쉬람단은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고 협동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JTS는 이번 도로보수 쉬람단을 위하여 트랙터를 대여하여 흙을 퍼 나르고, 배수관용 콘크리트 파이프와 삽, 곡괭이, 철제 대야 등의 연장들을 구입하여 지원하였다. 마

을마다 15가구씩 그룹이 지어져 있고 그룹리더가 정해져 있어서 일을 조직하기에는 수월하였다. 그러나 첫째 날에는 사람들이 줄에 대한 개념이 없어 줄서기도 안 되고 이름을 불러도 기껏해야 얼굴가리며 손만 들고 심지어 자기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최소한 서너 번은 이름을 부르고 확인에 확인을 거쳐야 했다. 목이 좀 아프긴 했지만, 일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훈련이 되면서 나중엔 줄도 잘 맞추어 앉고 이름을 부르면 씩씩하게 “하~양”하거나, “예설! 브라더!” 하고 답도 잘하였다. 하루 일을 마칠 때 잠깐 노래자랑 시간을 가지면 서로 상대보고 나가서 하라하고, 나한테 코리아 송을 하라 하지 자신들은 절대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여성들이 대중 앞에 나와 노래하는 것은 아예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는 이젠 좀 달라졌다. 자발적으로 나와 한 곡 멋지게 뽑아내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 친교의 시간 모두 재밌어 했다.

모두들 연장을 얼마나 아끼는지 서로 자기네 그룹의 연장이라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일을 하기 위해 지급된 연장을 너무 아낀 나머지 신주단지 모시듯 집안에 고스란히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는 정말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아자드비가, 소라즈비가 마을은 쉬람단에 참석하는 남녀 비율이 비슷했는데, 안투비가 마을은 여성 비율이 너무 높았다. 그래서 땅을 파거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 가능할지 걱정이 앞섰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젊은 부녀자들의 곡괭이, 찌풀라(인도식 삽) 놀림이 남자들을 능가할 정도였다. 게다가 자갈, 모래를 한 포대씩 거뜬하게 들고 척척 나르는데, 그야말로 '예술'이었다. 다른 한쪽에는 그늘에 앉아 어린애 젓먹이는 부녀자들도 있었고, 대부분은 구슬땀을 흘리며 미장 시멘트를 들고 날랐다. 그러다 시멘트를 얼굴에 뒤집어 쓰기도 했는데, 그럴 땐 피식 웃으며, 길가 풀잎을 꺾어 살짝 닦고는 환하게 웃었다. 그야말로 불구부정의 도를 실천하는 현장,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를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었다.

쉬람단 마지막 날에는 소라즈비가 마을에서 유치원 앞 도로를 보수하는데, 자발적인 꼬마 쉬람단이 펼쳐졌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돌을 나르고 삽질을 하고 쇠대야로 흙을 날랐다. 코흘리게 꼬마 애는 옷 앞자락에 자갈을 담아 안고 “브라더! 여기요!” 하고 달려와서 웅덩이가 파인 도로에 내려놓았다. 코끝이 찡하였다.

누가 이들을 게으르다고 비난 할 손가!

10월 20일! 마을 쉬람단이 끝나고 구호 식량을 나누어 주는 날이다. 같이 땀 흘리며 일해서 일까, 수자타 아카데미 대강당에 모인 마을 주민들의 얼굴이 매우 친근해 보였다. 집집마다 보다 많이 나누어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구호 식량을 받으며 환하게 웃음 짓는 주민들의 얼굴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더 이상 굶주리는 사람이 없기를 염원해본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JTS 편집부



지난 9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북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지난 7월 북한수해 때 JTS가 보여준 헌신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며 초청을 했다. 수해 때 JTS가 가장 먼저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호소했고, 이후 국

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함께 나섰고, 이것을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로 주춤거리던 정부도 대북수해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게 되었다. JTS는 국내와 중국 심양에서 동시에 구호물품을 구입, 8월3일 첫 물품지원에 이어 8월30일까지 5차례 수해지원을 했다. 특히 8월2일 중국 심양으로 날아가 심양 도매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한 개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발품을 팔던 박지나 본부장을 본 북한 관리들이 감동을 받았다. 물건 하나하나 확인해 가며 품질을 확인하고 주문한 개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다니던 북한관리들이 자신들도 인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기 어렵다며 JTS의 활동이 물품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라며 감사해 했다. 이런 일들로 남과 북이 한 발짝씩 더 다가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의 흐름이 자유로워지면 한반도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희망이 자라나는 것 같다. 물건과 돈으로, 자원활동으로 마음을 내 주었던 수많은 후원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북한수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평양에서의 3박4일 동안 수해지역은 길이 끊겨서 직접 방문하지 못했지만 수해지역에 JTS가 지원한 물품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분배했는지 분배 내역서를 상세하게 만들어 건네주며 남한에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

남과 북은 불과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했다. 96년 북한 식량난 때부터 시작한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또 한번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는데도 지원을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JTS는 북한만이 아니라 전세계 어디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달려가서 도울 것이다.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도움을 너무나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 어떤 조건도 없이 필요하면 그 필요가 다할 때까지 하는 것이 인도적 지원이다. 남과 북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에 한 발 더 다가가기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수해를 입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큰물피해지원물자 접수 및 공급정형

국제민간단체인 JTS가 모은 큰물피해지원물자 접수와 공급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정형

치약864개, 세수비누5000개, 빨래비누2000개, 치솔30000개, 남비2000개, 후라이팬1330개, 식기2만210개, 소생이120개, 물통1500개, 밀가루700톤, 라면1250지합, 의류1만1523벌, 양말5428벌, 깔신2215켤레, 양초2660개, 의약품7지합, 이불20000개, 신발2만8000켤레

△공급정형

-평양도 양덕군
밀가루200톤, 이불6666개, 라면416지합, 치약288개, 세수비누1666개, 빨래비누666개, 치솔10000개, 남비666개, 후라이팬413개, 식기6746개, 소생이40개, 물통500개, 옷3841벌, 양말1809켤레, 깔신738켤레, 양초500개, 신발9000켤레, 의약품2지합

-평양도 신원군

밀가루100톤, 라면416지합, 치약288개, 세수비누1666개, 빨래비누666개, 치솔10000개, 이불6666개, 남비666개, 후라이팬413개, 식기6746개, 소생이40개, 물통500개, 옷3841벌, 양말1809켤레, 깔신738켤레, 양초500개, 신발9000켤레, 의약품2지합

-평양도 성천군

밀가루200톤, 라면418지합, 이불6668개, 치약288개, 세수비누1668개, 빨래비누668개, 치솔10000개, 남비668개, 후라이팬414개, 식기6748개, 소생이40개, 물통500개, 옷3841벌, 양말1810켤레, 깔신739켤레, 양초500개, 신발10000켤레, 의약품3지합,

-함남도 교원군

밀가루100톤

-강원도 금강군

밀가루100톤



주최: 2007년 12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JTS

< 큰물수령증은 북한큰물피해때 지원한 물품 수령증입니다. >

다른 세상인 것 같은데

최기진 | 필리핀 JTS

필리핀 JTS 사업 현장에서 일한 지 100일이 지났다.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이곳에도 나름의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중 어떤 것들은 한국에서 보던 것과 친숙한 것들이 있다. 그것을 간단히 소개 하자면, 첫째 아이들의 놀이이다. 고무줄 놀이, 소타고 다니는 아이의 모습, 대나무로 총을 만들어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어릴적 뛰어놀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사진을 직접보면 우리나라에도 저런 모습이 있었지 하며 어릴적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고무줄놀이



그림 2 대나무 총



그림 3 소타고 가는 아이들

70년대까지만 해도 낯익은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잊혀진 풍경이 되어갔고, 어쩌다 기록 사진 속에서나 아 저런 때가 있었지 알 수 있고, 아주 가끔은 기억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

둘째는 생활 풍속이다. Mampalanay란 곳을 방문했을때 그곳 맷돌을 보고 참 신기해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의아해했다. 그러나 친숙한 풍경을 보면서 재미있어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는 맷돌에 옥수수 말린 것을 넣고 빵아서 그것을 쌀대신 밥으로 해먹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꼬

리가 7개달린 여우를 보았다.(?) 옛날 전설에 구미호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곳에서 직접 볼 줄이야! 증명해 줄 사진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구나.

Matampay란 곳에서는 커피를 빻는데 쓰는 절구와 대나무를 이용하여 풀무질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San Mateo란 곳에서는 대장간을 보았다. 이것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진 자료를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림 4 커피 빻는 절구



그림 5 Mampalanay에서 본 멧돌



그림 6 Matampay에서 본 대나무 대롱풀무



그림 7 볼로 만드는 대장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겨움도 느꼈고,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임을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함께 묻어나왔다. 이곳에서 이런 문화들이 유지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직도 여기는 농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한다는데 있겠다. 농업 사회가 가지는 가족공동체, 마을공동체의 모습이 이곳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셋째는 물건을 아낌없이 쓰고 또 쓴다는 것이다. 이곳에는 한국에 비해서 모든 물자가 부족해서 그런면도 있지만, 사람들은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못쓴다고 생각할 때까지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음 사진 한 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전자 손잡이는 떨어지고 없고 그 자리를 철사를 대신 엮어서 사용하고, 주전자 뚜껑 손잡이도 어디론가 이사를 가고 그 자리또한 철사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주전자 주변은 시키렇게 그을려서 한국같으면 벌써 고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아직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물건들은 자기들의 수명을 충분히 누리면서 이곳 저곳에 잘쓰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림 8 Songco에서 본 커피 주전자

또한 Songco에서 들에서 자라는 풀로 종이를 만드는 사람을 만났고, 그가 직접 만들었다는 종이를 직접 볼 수 있었다. 종이의 재료로 쓰이는 것은 들풀, 바나나잎, 사탕수수잎, 그리고 코코넛 잎 등을 사용한다고 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 A4 50장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위의 재료들은 이곳에 한정없이 널려 있는데 다만 수공이어서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화장지만이라도 만들어 쓸 수 있다면 나무를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에도 고유 언어와 문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은 사용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의 고유 문자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에게 고유 문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있는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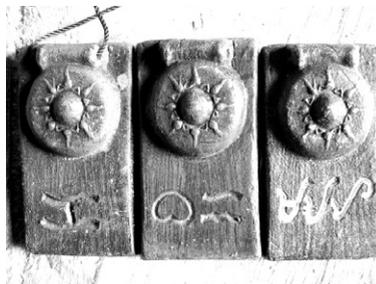


그림 9 원편이 K, 가운데가 friend, 그리고 I love you라는 의미라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영어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만약 역사가학자가 이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소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

면 한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고유 언어에도 이미 영어와 스페인어가 섞여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민다나오 지역의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였다. 특히 필리핀은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한국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이다. 광화문 앞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필리핀회사가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이곳보다 훨씬 잘 살고, 이제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깨끗하게 삶을 사셨고, 그분들 덕분에 지금 내가 이곳에서 봉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난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가? 그분들이 흘린 땀의 댓가로 나는 지금 이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이다.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오히려 자손들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준, 그래서 자손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할 수 있게 해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2006년 기획이벤트3

온기를 나누는 북한에 내복보내기 -청진고아원어린이에게 내복보내기운동-



9월, 10월 두 달 동안 북한에 있는 청진고아원 어린이 4,000여명에게 지원할 내복을 보내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북한은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난방시설이 가동되지 않은지 오래되었는데, 여름에 있었던 홍수로 인해 더욱더 열악한 환경에서 겨울을 나게 되었다. 청진고아원 어린이 한명에게 2벌의 내복(5,000원)을 지원하려고 하며, 9월부터 10월 15일 까지 모은 후원금내역을 공유하고자한다. 내복보내기운동은 전국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겨울 내 진행될 예정이다.

● 청진시 고아원 학생수

〈유아원〉

연령	인원
1살까지	150명
2살까지	105명
3살까지	50명
4살까지	75명
총인원	400명

〈고아원 및 특수학교 양로원〉

연령	남자	여자	합계
애육원(유치원)	300명	210명	510명
초등학교	474명	346명	820명
중등학교	885명	855명	1,740명
중성학원	160명	140명	300명
특수학교	45명	35명	80명
양로원	82명	93명	175명
총인원	1,946명	1,679명	3,625명

● 북한내복보내기 후원활동 현황 (9월부터 10월 15일까지 후원현황)

지역명	거리모금횟수	거리모금액	기부자수	기부금	소계
광주	3	417,570	0	0	417,570
대구	5	733,170	12	1,690,000	2,423,170
대전	45	2,826,970	6	430,000	3,256,970
동래	45	2,533,940	52	1,031,000	3,564,940
마산	29	2,610,570	27	2,083,390	4,693,960
서울	4	1,619,250	83	4,057,000	5,676,230
울산	1	132,230	57	1,211,530	1,344,060
정읍	0	0	2	65,000	65,000
제천	1	112,900	0	0	112,900
청주	1	98,960	60	1,075,000	1,173,960
해운대	25	1,695,750	44	1,155,000	2,850,750
인터넷 및 일반은행입금	0	0	6	670,000	670,000
합계	159	12,781,590	349	13,467,920	26,249,510

* 거리모금 캠페인 소감문

● 대구

북한이 미사일을 터뜨리고 국민들이 다 죽어도 정토회는 거리모금을 할거냐고 다그치시는 분이 있었다. 글썄요... 미사일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살지 죽을 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미리 생각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살아남은 사람끼리 모여 뭔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분은 의견을 나누고 싶은게 아니라 화를 내고싶어 하셨다.

또 어느 아저씨 한분은 싸늘하게 내뱉었다.

“나는 했나?” “예 했습니다” “언제 했노?” “매달 하고 있습니다” 못마땅한 듯 흘깃 찌려 보고 가셨다. 저 앞에 누워 있는 노숙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다시 우리들에게 뭐라 소리치셨다.

그 후에... 나를 살펴봤다. 매달 공과금과 함께 습관적으로 내는 얼마간의 돈으로, 짧은 거리모금시간이 끝나고 이 동대구역 광장을 떠나는 것으로, 일상에서 마주치는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무관심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엄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내 낀 니꺼고, 니꺼도 니꺼다... 알겠나? 내꺼는 다 니꺼다. 당연하지... 나는 엄한테...” 엄마의 마음으로 “내낀 다 니꺼다” 그렇게 외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 마산

어느때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몇 분이 핵이야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통일이 되면 그 핵도 우리 것이 아니냐고 했다는 분의 얘기. 북한이니까 돕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다.

● 광주

2006년 9월 3일 전남 송광사에서 북한어린이 돕기 모금을 했다. 광주 시내에서 모금활동을 했을 땀힘이 들었는데 더위도 조금은 지나간 듯 바람도 살랑살랑 가을이 묻어났다. 북한 어린이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모금에 참석하게 되어 너무 기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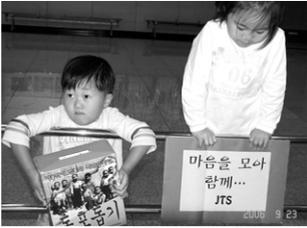
● 부산 해운대



오늘은 특별히 야간반 대표님의 막내딸 소담이가 참석하였다. 아주 이쁘고 깜찍한 소담양의 모금에 다들 피식피식 웃거나, 허허거리며 선뜻 모금함에 손을 넣어주셨다. “고맙습니다”, 꾸벅 하는 인사도 어찌나 예쁘게 잘하던지 오늘 모금의 일등공신이었다.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분이 유심히 보시더니 모금해 주셨고, 까맣게 그을린 연로하신 분이 자신도 강원도 수재민이라 그 고통을 잘 아신다며 응해주셨고, 지나가던 외국인이 우리의 마이크를 잠시 빌려 노래를 부르더니 거금 1만원을 주셨다. 소담이가 옆에서 거들고 바람도 아주 선선하고 모금도 정말 잘되어 기쁘고 즐거운 캠페인이었다.

● 부산 동래

아름다운 계절 가을, 부산은 여러가지 축제로 온 도시가 들떠 있다. 국제 영화제, 동래 음성 축제, 자갈치 축제... 몇일전 불교대 수업 때 스님이 말씀하셨다. “아무 조건 없이 해야 할 것이 세가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주고, 외로운 사람은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 당국자가 핵실험을 하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다가오는 추위에 굶주리고, 무방비로 있을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할까봐, 옥먹을까봐 위축되고 쭈뼛거리는 마음을 다독이고 용기를 내어 봤다.

“1000원은 작은 돈이지만 제3세계의 굶주리는 아이들 7명에게 영양식을 줄 수 있는 귀한 돈입니다. 동전이라도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대부분 여전히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가지만, 그래도 귀기울여서 들어주고, 눈 맞추어주고, 귀한 돈 모금통에 넣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는 분을 보면 기적같다.

● 서울

모금은 도움받는 사람, 모금하는 사람, 나에게도 모두 도움되는 일이다. 일어나는 분별심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하기 싫은 마음을 넘어서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습관으로 인해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게 마련인데 이것을 넘어서는 게 공부라는 생각이 든다.



선혜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선혜는 함경북도 청진 고아원에 살고 있습니다. 식량난으로 어려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 들어와 올해 1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키는 120cm, 몸무게 25kg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생 키에 몸무게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보고 있노라면 무척 가슴 아픕니다. 식량난때 태어나 먹을 것이 없어 영양도 부족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다가옵니다. 난방도 없는 고아원에서 추위에 떨어야 하는 선혜에게 겨울내복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먹지도 못한 사람들이 추위에 노출되면, 겨울은 더욱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랑의 내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간절히 바랍니다.

온기를 나누는 '북한내복보내기운동' 내복 2벌 5,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484201-01-134875 (사) 한국JTS

거제도 애광원 경주나들이 사단법인 한국JIS가 함께 합니다.

김애경 | 서울 정토회

10월 16일 월요일, 정토회 활동가들과 거제도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애광원 식구들이 경주에서 만났다. 애광원 생활인 58명과 진행자를 포함한 77명은 대형차량 2대로 새벽 6시30분에 거제도를 출발해서 10시에 경주에 도착했다. 동래와 해운대, 마산, 울산과 대구활동가 60여명도 대형차량 2대와 승용차로 이른 아침을 달려 불국사에 모였다. 모두 150여명이 한마음으로 가을소풍을 떠났다.

소풍일정은 불국사에서 만나 다보탑, 석가탑, 무설전 등 경내를 순례하고, 경주시내로 들어와서 점심을 먹었다. 대릉원에 들어가서 천마총을 구경하고 잔디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장기자랑을 했다. 버스투어로 박물관, 오릉, 삼릉, 나정, 사천왕지, 통일전, 보문단지, 무열왕릉을 들었으며, 안압지에 들러 경내를 구경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하루 일정의 소풍을 마감했다.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라고 부르는 말을 애광원에서는 생활인이라고 부른다. 애광원 생활인들 한명마다 정토회 활동가가 한명씩 짝지로 배정되었다. 불국사 앞 마당에서 차에서 내리는 애광원 친구들을 맞이했다. 인형, 모자, 머플러 등 짝지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인지, 간절하게 보고 싶던 연인 같이 반갑게 맞이했다. 간단하게 입재식을 한 후 간식을 먹고, 다보탑과 석가탑을 둘러보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에 계속 돌아다니는 친구, 들리지 않는 친구, 계속 손가락을 물어뜯는 친구, 계속 먹는 것을 달라는 친구, 계속 흔들거리는 친구, 쓰러질듯 자꾸 뛰어나다하려는 친구, 무표정한 친구, 외면하고 자꾸 다른 곳을 보려는 친구, 계속 질문을 하는 친구,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친구, 자기 마음대로 몸이 조절되지 않는 친구 등등 여러 모습의 짝지에 익숙해지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돌덩어리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고 그대로 놓여서 불국사를 만들었듯이, 우리 모습 그대로 잘 쓰일 수 있다고 스님께서는 자상하게 하나씩 설명을 하신다. 뒤에서 천천히 휠체어로 따라다니시던 애광원 원장님의 따뜻해 하시는 모습에서 하루의 일정이 순조로움을 느낀다.



대릉원 천마총에도 모두 들어가 보고, 오락시간을 가졌다. 동요는 동요대로, 대중가요는 대중가요대로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던지, 모든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지휘를 하고, 함께 춤을 추며, 수화를 하며 함께 한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했다. 우리가 다니는 길에서 만난 주변 사람들도 보기에 좋았나 보다. 장애인가족들이 나들이 나온 것을 오히려 격려해주었다. 밝고 맑은 애광원 친구들도 좋아했고, 정토회 활동가들도 감동을 일으키는 봉사였다고 입을 모으고, 곁에서 보던 사람들도 따뜻해했다.

동국대병원에서 간호사 두 분이 동행을 했고, 긴급수송차량을 준비하였으나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되었다. 가을들녘에 벼가 누렇게 익고, 우리는 수확을 거두어 들인다. 애광원 장애인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마음속에 있는 모든 편견과 외면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경주나들이를 통해 자유를 느낀 하루였다.

* 활동 소감문 모음

● 마산

* 첫 만남이 울컥했으나 이 친구들이 타고난 만큼 행복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 삶과 장애우의 삶이 같다고 가볍게 생각되어 부대끼지 않았다. 헤어질 때 눈물이 났고 '쓰이는 사람' 입을 체험했다. 잘 쓰이는 사람 되겠다. 소중한 하루였다.



* 천사라 부담감 없고 걱정 없었다. 기독교 단체라 고맙다. 짝지가 더 훌륭했다. 스승이더라. 다른 분 두려움 가지다가 편안해 하는 것 보니 좋았다. 아미타 부처님처럼 장애인 없는 세상 원을 세워 보았다. 종교의 벽 허물고 서로 도우며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행복한 하루였다.

● 부산 동래

* 처음 바깥구경을 나온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듣고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들었다. 좋은 느낌을 소리를 지르며 표현하는 모습들에 가슴이 찡해 왔다. 하루를 겪으면서 애광원 선생님들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원장님 말씀대로 종교는 나눔이고 사랑이다. 나눔의 뿌듯함! 정말 즐거웠고 그들이 사랑스러웠다. 그냥 엄마와 같이 나들이 가는 편안한 모습. 정토의 도반들과 함께해서 정말 좋았다.

● 부산 해운대

* 짝지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오히려 나를 배려해 주었다. 안아주고, 자면 옷을 덮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짠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건강치 못한 사람을 안아 주라는 의미인 것 같다. 헤어질 때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해 줘서 울고 싶었는데... 짝지한테 많이 배웠다.

* 걱정했는데 짝지가 먼저 다가와서 내가 걱정할 것 없었다. 가식이 없고 순수한 모습에서 자유로움을 느꼈다. 아무 걸림 없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아무 걸림 없이 할 수 있을까 해서 부러웠다.

● 대구

* 처음 경주에 가야된다고 할 때 대답은 했지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었다. 두려웠다. 장애자라는게 더욱더 나는 부담스러웠다. 애광원 친구들이 버스에서 내리는데 마음이 울컥했다. 솔직히 말하면 물러나고 싶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걱정이 앞섰다. 김지혜씨 손을 잡았다. 지혜씨는 나와 눈조차도 맞추지 않았다. 어쩌면 나도 눈을 맞추기가 싫었는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지혜씨 손이 따뜻했다. 그때 눈물이 났다. 내 손을 자기 가슴에 얹어 나를 안아주던 모습...39년 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했다. 지금 내 모습이 사랑스럽고 고맙다. 하루에 몇 번씩 지혜씨 생각이 난다. 밥은 먹었을까. 가슴한쪽이 저러온다. 이제는 조금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다. 이 세상에 고마워할 일 밖에 없는 것 같다.

● 울산

* 눈도 안보이고 다운증후군을 가진 이 친구에게 눈이 되고 손이 되어 주면서 난 참 편안해 함을 느꼈다. 이런 도움은 잘 주는데... 그냥 있어주는 일에 마음 주는 일에 참 익숙치 않은 나를 발견한 좋은 날이었다.

● 서울

* 천마총을 돌고나서 잔디밭에서 노래 부를 때, 나와 다른데 함께 하니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불국사나 천마총, 안압지 등 장애인 이 대단위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해서 놀랐다. 사전답사팀과 선발팀으로 활동해서 의미가 더 있었다.



친구를 그리며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환경공학과 「REC 오광대」
김승우, 이은경, 정신영, 김태현, 김덕길, 박성호, 김지영, 지도교수 최광수

(사)한국JTS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경상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6월 친구 한 명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지리산 계곡에 놀러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고 이재경군은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저희들은 고 이재경군의 명복을 빌기위해 약간의 돈을 모아 (사)한국JTS에 기부하여 좋은 곳에 쓰여 지기를 희망합니다.

재경이는 저희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번 여름방학 동안 함께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대학교 해외탐방프로그램(Global Pioneer Program)의 지원을 받아 일본의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도시” 들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경이가 해외탐방프로그램을 알게 된것은 2006년 3월 말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중간고사 준비를 한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재경이와 우리는 해외탐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재경이는 일본 현지와의 사전연락과 자료조사 업무를 맡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팀 선정의 기쁨을 안고 탐방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출발을 보름 여 앞둔 시점에 재경이는 우리와 작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재정이 자리를 비워둔 채 UN대학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가센터(RCE)로 지정된 오가야마시와 센다이시, 그리고 UN대학본부가 있는 도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각 도시들의 사회, 문화, 경제적 여건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사례를 배우고 선정 도시별 협력 단체의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세계 8번째로 선정된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통영 RCE)에 접목 가능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REC 오광대” 팀원들은 재경이가 그토록 공부하고 싶어하던 지속가능발전 전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며 재경이가 우리들 곁에 항상 있다는 생각으로 무사히 일본탐방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본 탐방경비로 준비하였던 돈 중에서 절약하여 남은 돈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재경이는 아쉽게도 저희 곁을 떠나갔습니다만 이 세상의 고통 받는 사람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돈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한반도에 몰아친 폭우로 남북한에 걸쳐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남쪽에서는 그나마 많은 분들의 도움과 정부의 노력으로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습니다만, 북쪽의 주민들은 정부의 무능력과 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의 핵실험으로 고조된 대북압박의 정세 속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라며 (사)한국JTS의 북한지원사업에 쓰여지기를 희망합니다. 재경이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의 행동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몰라요.

편집부

여러분은 첫 월급을 타면 가장 하고 싶은게 뭐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청년도 있습니다.

6월 어느날 JTS사무국으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대학생부 소속인 광봉준씨였다. 일선에서 레지던트 생활로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고 들었는데, 그가 첫 사회생활로 받게되는 월급의 90%를 매달 모아 1년간 기부하겠다고.

오우~ 좀 놀라웠고, 작은 감동이 있었고 감사했다. 요즘같은 시대에 보기 드문 정말 멋진 청년이라 생각되어 잠깐 인터뷰 하였다.

◆ 사회인이 되어 수입을 갖게 되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돈이 꽤 필요하기도 할 것 같은데, 의사로 막 현장에 들어서서 힘들고 바쁘게 번 돈일텐데, 이렇게 마음을 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졸업하기 전부터 막연하게 돈을 벌게되면 반정도나 아니면 일 정정도를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토회에서 자원활동 하시는 어머니와 얘기해보니 처음 일을 시작하는 1년간, 남들이 수입의 10%를 기부한다면 나는 90% 기부하고 10%만 갖고 살아 보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했고, 아버지에 게도 말씀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월급을 받으면 많은적든 일단 90%는 JTS에 보내고 나머지로

사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든 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고싶은 걸 많이 못하지도 않았고요. 워낙 바쁘고 시간도 없어서 돈 쓸 일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모자라서 못 살겠으면 좀 빌려서 쓰거나 얻어서 쓰거나 그래야죠 뭐. 일해서 번 돈을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쓸 때, 일하면서 지나간 제 시간과 삶이 더욱 가치있어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 주변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직장동료나 친구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정토회 친구들 몇몇은 알고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모르고 있어요. 굳이 숨기려한 건 아니지만 말하진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되면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미쳤다'고 할 꺼예요.(웃음)

◆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면 좋겠나요?

JTS사무국장님과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에 쓰기로 얘기했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쓰여도 상관 없습니다.

- 광봉준님은 5월부터 꾸준히 후원금을 내주고 계십니다.
밝은 첫 출발만큼 광봉준님 가시는 앞길에 희망이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

믿음직한 아이들

정덕모 | 남양주 도곡초등학교 교사



도곡초등학교 1학년 4반 아이들

거리모금을 나갔다. “천원이면 북한어린이들에게 영양식을 1주일동안 먹일 수 있고, 오천원이면 한달간 먹일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고개를 숙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모금을 했다. 3시간동안 2만 오천원,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하루였다. 그동안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얼마나 가슴으로 느끼고 진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가? 외면하며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이 그동안 나의 마음이었고, 통일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임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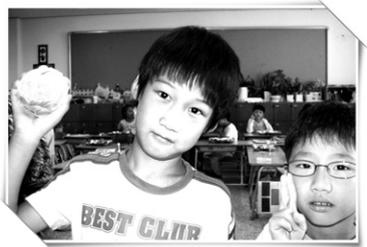


제가 모았어요

다음 날,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해보았다. “애들아, 북한의 어린이들은 천원이면 1주일

동안 한 끼씩 영양식을 먹을 수 있고, 5천원이면 한 달 동안이나 먹을 수 있다.” “정말이요!” “그럼~.” “내일 천원 가져올게요.” “난 집에 2천원 있어요.” 눈물이 핑 돈다.

3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반의 통일돼지는 키워졌고, 마음 따뜻하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돼지분양에 적극 동참하셨다. 그리고 재작년 북한에 수해가 크게 났을 때에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모금하여 큰 사랑을 전했다. 선생님들께서는 북한에 농기구 보내기 성금을, 운동회가 끝나고 상품을 주고 남은 공책을 보내주셨다. 올해도 우리 학교의 사랑스런 친구들은 300마리 이상의 돼지를 방학동안 키워주었다. 추운 겨울에 내복도 입지 못하고 떨어야 할 어린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전달되어 학부모님들도 100벌의 내복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을 내주셨다. 이제 통일은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곳곳에서 따뜻한 마음이 모아지면... 무슨 일은 못할까? 이제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쫓긋하고 듣는 우리 아이들이 든든하다.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지 묻는 아이들이 믿음직스럽다. 북한에는 빨갱이만 사는 줄 알고 배웠던 우리들보다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들 모두가 “나도 통일을 위해 한 일이 있다”고 가슴 펴고 말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빛나는 얼굴들

북한 내복보내기 도곡초등학교 1-4

정덕모 선생님	50,000	박 광 현	5,000
김 모 비	5,000	박 현 수	5,000
김 민 혁	5,000	손 지 은	10,000
김 성 원	5,000	송 예 린	30,000
김 용 민	10,000	안 현 지	10,000
김 유 빈	10,000	어 승 미	20,000
김 응 수	5,000	이 주 연	5,000
김 장 원	5,000	이 찬 훈	5,000
김 정 수	5,000	정 성 윤	5,000
남 기 정	5,000	정 세 빈	5,000
노 강 민	10,000	최 우 림	10,000
노 지 영	20,000	최 은 정	10,000
당 주 원	5,000		



인도지원사업

● 스승의날 행사

9월 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수자타 아카데미 상급생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상급생들은 처음으로 마이크도 잡아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영사도 하면서 떨리고 서툴렀지만 하나같이 좋아하며 뿌듯해 했다. 전교생이 5루피씩 추렴을 하여 조그만 선물과 다과도 준비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정성을 다하여 가르쳐 주는 스승이자 선배들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노동자 부인 축제



9월 17일 비스카르마 푸자를 맞아 건축파트에서는 노동자들의 부인을 초청하여 한바탕 잔치를 벌였다. 부인들을 위한 바늘귀 퀘기, 팔씨름, 남편들을 위한 짝추기, 줄다리기를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옷과 옷감, 꾸집한 음식을 선물로 나눠주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인들이 남편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내년에는 부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초청하여 계몽교육 프로그램도 넣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앞장 설 예정이다.

● 수자타 아카데미 학부모 간담회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9월 25-28일 마을별로 학부모 간담회를 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업

성취도 등에 대하여 공유하고,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유치원 교사훈련



9월 22-24일 유치원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각 유치원에서 2-3명씩 선발하여 총 43명이 참가했다. 가야의 교육부 관계자 세 분이 교육해 주셨고, 유니세프가 철분영양제 4000정을 후원해주셨다.

● 겨울철 구두 지급



수자타 아카데미는 10월 10일 간디탄생 기념일 행사를 마치고 전교생 608명에게 겨울철 구두를 지급하였다.

● 비타민, 칼슘 영양제 지급

9월 11-27일 유치원, 수자타아카데미 학생 및 교

사, 노동자 총 2300여명에게 키센비타 15452정, 엔 피키즈 칼슘 19847정, 키커 889포를 지급하였다.

● 파라미타 그룹 수학여행



수자타 아카데미 10학년들을 마치고 1년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파라미타 그룹 9명은 10월 10일 팔까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식물원, 동물원, 갈리가트, 마더 테레사 하우스, 인디안 뮤지엄, 사이언스 씨티, 하우라 브리지, 메트로(지하철) 등을 견학했다.

북한지원사업

● 함경북도 고아원 및 취약계층 지원

10월 10일 JTS에서는 함경북도 고아원 및 양로원에 2차 지원물품을 지원하였다. 7월 악기 및 운동기구와 세탁기, 미싱 등을 지원한데 이어 10월에는 식용유, 미싱, 악기류 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여 함경북도 고아원 및 양로원 4,000여명의 원생들에게 추석선물로 초코파이를 함께 지원하였다.

그리고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건설중에 있는 어랑발전소의 노동자들에게 안전모와 헤드랜턴을 함께 지원하였다. 어랑발전소 공사현장은 어두운 갱도안에서 촛불을 켜고, 안전장구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일부 노

동자들이 낙석 등으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번 지원으로 어랑발전소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사업

●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엽서와 그림에 담다



서울정도회 복지사업부는 9월 11일 JTS에 오랫동안 후원해주신 분들께 추석선물로 감사엽서를 보냈다. JTS회원 중 553명이 3년 이상을 후원해주셨고, 그분들께는 인도 엽서를, 5년 이상 후원하신 704명에게는 수자타아카데미 학생이 그린 그림으로 만든 엽서를 보냈다. 후원자들 중 엽서와 그림을 받고 소감문을 보내주셨다.

- 경북 울릉군 김명희(북한결연회원)
나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이) 멀리 있지만 가까이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 좋습니다.

- 서울 노원구 박순천(인도돕기후원)
정말 좋았습니다. 2학년 아이가 색연필로 울퉁불퉁 그린 서투른 그림 한점이지만 돈 주고 산 어떤 그림보다 저에게 웃음을 줍니다. 이렇게 기쁜 추석 선물을 주신 JTS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하세요

● 애광원 바자회



9월 20일 수요일 서울 정토회 앞 마당에서 애광원 바자회를 열었다. 애광원은 거제도에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복지시설로, 1952년에 김임순 원장의 설립이래 장애인들의 치료, 교육, 직업 훈련을 두루 갖추고 있다. 정토회와는 1998년 막사이사이상 사회지도 부문을 수상하신 김임순 원장과 법륜스님이 인연이 되어 바자회를 열게 되었다.

거제도의 청정 바다에서 나온 멸치와 다시마, 미역, 보리수 잼, 매실 액기스, 매실잼, 유자간장, 락고, 애광원 직업 훈련시설인 애빈에서 직접 만든 과자, 오븐 장갑, 핸드폰집, 누비슬리퍼, 조각이불, 가방 등등이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수요일 바자회의 총 수익금은 약 6백2만2천원이었다. 며칠 뒤 거제도 애광원에서 JTS로 북한 내 북보내기에 지원해달라고 1백만원의 기부금을 보내 주셨다.

● 서울 정토회 저녁반 용인창고 정리하기



9월 23일 토요일 가을 소풍가는 기분으로 용인 창고 정리를 하러 갔다. 맑은 하늘 아래서 노동을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놀이처럼 여겨졌다. 김환기, 김연희, 최미영, 신자은님은 양말 정리를 했다. 어른 양말, 아이 양말, 겨울 양말, 여름 양말, 양말 양말 양말... 박지현, 양윤순님은 원단과 의류 정리를 했다. 환상적인 빛깔의 옷감이 인도로 보내져 멋진 사리로 탄생하길 바라며 정성스럽게 박스에 담았다. 서홍석님은 큰 손에 어울리지 않게 쌓여 있던 공책들을 정리하셨고, 북한 동포이신 윤희철님과 낮반 김애경님도 함께 하셨다. 창고에 쌓인 많은 물건들을 보며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 제4회 나마스페! 수자타 나눔장터



4회째를 맞이한 수자타 나눔장터가 9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초동 건강보협심사평가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장에는 지난번 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신 분의 사진을 게시했다가 선물로 드렸고, 길 건너 김밥나라 아주머니와 인근 다른 장사를 하는 청년도 와서 약세서리를 구입해 갔다. 인도 음료 맞시, 짜이, 홍은실님이 기증해 주신 석류차가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3회에 이어, 풍성한 가을을 더욱 넉넉하게 해준 문화행사가 있었다. 서형규님이 기타반주로 수자타이카데미 교가와 화개장터를 수자타 장터로 개사한 곡을 연주해 주셨고, 장혜

진님이 '노래의 날개위에', '사랑해요' 등을 열창해 주셨다. 서울정토회 복지사업부, 불교대학 봉사자, 회원조직부에서 20여명의 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새롭게 서울정토회 포교부에서 즉문즉설 테이프를 판매하여 수익금의 30%를 주셨다. 이번행사의 총 수익금은 456,350원이고, 전액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하여 전달된다. 제 5회 수자타 나눔장터는 11월 12일 일요일 경북문경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기증물품을 기다린다.



일대를 순례했다. 총 150명이 가을소풍을 함께 한 이날 행사는 JTS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 아름다운가게 간사교육 강의



아름다운가게 간사교육이 9월 25일 월요일 만해 NGO교육센터에서 있었다. 전국에서 올라온 아름다운간사 80여명이 모인 이 행사에 '캠페인 진행사례 및 노하우'에 대해 서울정토회 복지사업부 김애경부장이 강의를 했다. '캠페인은 잔치다.'라는 소재목으로 영상물을 이용해 그동안 정토회에서 진행해온 캠페인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거제도 애광원 경주나들이

10월 16일 월요일 중증장애인시설인 거제도애광원 생활인들이 경주로 소풍을 나왔다. 생활인 58명의 나들이를 위해 마산, 대구, 동래, 해운대, 울산, 서울정토회 활동가들이 짝지가 되어 함께 했다. 경주불국사, 대릉원(천마총), 안압지 등 경주

● 대구정토회 의류정리



10월20일 아침부터 대구정토회가 분주했다. 차용 백님께서 아는 분께 기증받은 의류 1톤차 1대분량이 회관앞마당에 펼쳐졌고, 다시 모두 옥상에 널렸다. 새옷을 널어서 소독을 하고 냄새제거도 하고 바삭 말리고, 다시 걸어서 차곡차곡 개켜서 박스에 담았다. 이를 동안 했는데 아직 남았다. 새옷은 북한에 보내고 북한에 보내지 못할 옷은 인도로 보내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새옷을 정리했다면, 이제부터는 새옷이지만 약간의 이물질이 묻어서 세탁한 옷을 정리하려고 한다. 시골 벽척한 분위기가 좋다.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8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광주

김인숙 11,820 이선주 21,550 임종례 48,400 임형근 15,530 임형근 19,480

대구

고광훈 36,810 김은난 11,080 덕영치과 45,140 덕영치과 16,470 문소영 19,420 이미경 29,280 이영선 21,740 이영선 19,970 이정수 16,870 이준호 29,600 장선옥 34,730 정원자 11,310 조윤성 9,780 진동성 2,890 크리스토퍼19기모임 150,390

대전

김상원 6,840 김태풍 25,320 김현수 16,680 김현수 11,180 김희정 15,230 무명 17,260 무명 29,580 무명 15,010 무명 13,940 민규홍 24,790 이경미 12,450 이금봉 14,840 이수진 18,900 인바이오넷 29,440 장미 11,980 장미 23,880 제순희 24,520

동래

김아름 7,940 김재심 3,700 김지원 17,170 도모다찌 21,980 무명 19,610 무명 25,850 무명 25,250 무명 30,260 무명 22,340 무명 10,680 무명 14,950 무명 18,380 무명 1,480 문길련 46,650 법문주 30,260 법문주 146,800 서동현 16,760 선주향 10,190 옥은숙 37,610 이남선 20,990 인수 32,060 정영록 6,810 최정용 8,520 최혜란 20,100 하복초3-3 25,470 홍상범 30,200 황주성 19,000

마산

강미경 18,330 강탑 27,070 공양외집 4,100 김민희 6,450 김숙자 13,980 김연자 6,480 김연자 15,000 김연자 12,040 김정각 9,680 김지훈 16,230 김지훈 17,420 김지훈 24,610 노미야 48,400 배수민.수지 17,890 백미란 17,830 서동찬 21,440 선우 7,350 손영배 18,110 여태민 16,010 옥강의원 12,520 원협33번 21,110 유말순 13,410 유창민 15,120 윤창민 17,380 이진동 10,700 정부기 11,720 정운스님 53,600 정운스님 3,130 정호경 5,880 정호경 4,750 정호경(말양) 2,670 종출 18,890 최동호 19,950 최홍수 41,280 한인호 13,200 홍경희 20,925 홍소아과 42,390

서울

강유미 21,350 강유미 22,730 고병우 48,800 김민지 45,330 김민희 23,200 김수란 3,370 김연희 7,600 김예나 22,900 김유나 24,490 김재석 11,740 김점연 31,470 김현인 38,360 **도곡초등학교 189명 1,107,570** ((1-4반 구성인 2,520 김모비 7,880 김민구 6,350 김병우 10,020 김선한 3,560 김성원 8,000 김용빈 16,160 김응수 13,770 김장원 9,440 김태훈 6,060 노강민 5,130 담주원 3,120 박광현 5,390 박현수 9,630 손지은 18,330 송영훈 2,810 송예린 2,680 안현지 6,140 이승미 19,910 이주연 2,640 이찬훈 4,520 임예현 13,300 임준호 2,460 장민기 6,600 정덕모 3,950 정덕모 17,710 정덕모 10,440 정성윤 6,540 정세빈 7,840 정진 3,440 최우림 18,200 최유진 4,720 최은정 11,790 4-2반 강한나 5,770 구정호 8,060 남유라 14,890 노승연 15,980 신승욱 14,480 옥미나 4,920 이경현 5,700 이기석 3,340 이우진 3,100 이종민 4,390 이주원 8,650 이지현 5,420 이한울 8,580 전민우 2,400 채영환 2,720 최다빈 1,520 홍영기 6,830 홍현우 18,480 4-4반 강윤귀 1,750 박대운 8,090 백종준 1,460 이새미 1,470 이철희 3,470 임수권 1,830 최종준 2,040 4-5반 오은찬 2,820 5-2반 무명 3,230 5-3반 권진우 9,310 박상은 1,790 양희옥 14,110 이규범 1,520 이주현 16,770 이호정 1,890 정은찬 6,960 황윤정 2,750 5-4반 김채윤 1,830 무명 1,150 무명 5,070 무명 3,690 무명 5,210 박윤형6,490 송예준 1,600 이주현 1,990 최은규 1,650 홍석윤 1,350 5-5반 박지훈 1,790 이다인 2,740 이장연 4,320 조정직 3,760 채윤기 6,440 한성우 7,800 5-7반 강민아 5,820 강민아 4,550 고은비 4,390 권혜중 4,270 박서혜 3,270 박은비 3,790 선희준 2,450 양성민3,150 이승훈 1,230 이신우 1,070 장다혜 3,580 정기훈 5,340 정예희 1,790 함승태 4,590 6-2반 박선영 1,820 박소현 1,980 원채찬 3,720 이주연 1,560 6-3반 김예지 1,950 김혜연 4,480 무명 3,650 송현아 1,560 윤지수 2,420 이다혜 3,570 전희도 4,830) 홍정나 1,960 강성은 5,930 권기민 1,190 권혜영 4,100 김윤서 2,270 김가연 33,840 김다빈 4,010 김민수 140 김민유 5,870 김민희 23,870 김보영 3,070 김예린 200 김용수 12,480 김유빈 10,800 김정민 2,470 김준영 8,420 김지원 1,000 김혜진 710 남기정 3,200 노유희 2,020 노지영 16,780 마정은 3,220 무명 2,970 무명 4,180 무명 2,230 무명 2,690 무명 6,930 무명 2,110 문상철 2,130 민경래 15,400 박지영 6,230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8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배미래 4,230 배윤정 4,100 서세영 7,540 손종인 390 손채원 11,680 양재현 1,900 염동현 16,950 오세
 별 3,100 원형식 2,720 유미 3,490 윤태형 1,330 이다는 4,100 이도영 3,840 이민우 12,240 이보경
 33,250 이세연 6,150 이슬이 2,270 이수정 2,610 이슬기 1,270 이은정 2,390 이정목 25,700 이정옥
 9,270 이태용 3,950 이해인 5,160 이현주 2,930 전민재 8,950 전소정 5,950 전해지 7,910 정민수
 12,780 정수빈 1,210 정수연 2,000 정해은 5,020 조영채 600 조예은 9,030 조호근 1,370 최용빈 3,510
 최정문 4,140 최정민 1,820 최정민 6,460 최형열 1,350 한경태 640 한은섭 6,500 한은성 7,680 함승연
 2,640 황성주 1,480 허윤정 22,040 허정길 350 홍인영 2,010 황버리 1,900 류해령 101,370 무명 12,790
 무명 33,520 무명 39,810 무명 18,940 무명 25,490 무명 1,950 민아 43,570 박동원 18,500 박영기
 10,590 박세민 3,030 백남석 54,980 백상희 54,910 서원정 6,100 석성준 26,760 유수령 21,860 이동
 업, 이승은 124,070 이명희 36,000 이승옥 43,940 이은경 24,120 이정순 14,950 임숙이 23,450 임승진
 64,970 전향진 6,820 정태경 14,450 제5897부대 40,800 하나원 83기 무명 22명 124,830 하나원
 84기 41명 78,040 (김성희 2,130 무명 40명 75,910) 하나원 85기 49명 95,210 (무명 48명 83,500
 윤정심 11,710) 하나원 86기 37명 96,620 (김순옥 200 김순화 2,650 도명희 80 무명 32명 87,990 신
 옥선 3,500 한분녀 2,200) 한지숙 2,830 황유섭 28,030

● 울산

구영초등학교 91명 569,030 ((1-1반 김동의 2,310 김동춘 3,090 김이경 7,360 김주엽 2,750 김주영
 1,430 김지완 2,130 김진일 1,660 남태현 8,060 문셋별 280 박세진 7,190 서준형 4,070 손아영 5,410
 신민순 9,500 안주연 7,300 유지석 3,500 이승은 5,480 이은아 2,050 이재홍 1,580 최시현 4,780 최호
 준 1,750 한혜희 5,060 1-2반 강민정 5,500 고서영 3,110 김규민 1,240 김예림 12,380 김태영 1,610 류
 태정 17,810 박도영 6,110 박도윤 4,540 박성훈 6,850 박세창 840 박요한 3,020 박준오 8,370 방현배
 10,000 백나현 11,310 백준은 12,060 이권희 5,110 이동윤 8,280 이민우 5,830 이소원 2,260 이아연
 6,930 장선영 4,870 장성혁 4,250 전수빈 3,610 정유진 6,750 최한뉘 8,150 1-4반 임재일 920 1-5반
 김경민 6,570 김나영 4,580 김민철 2,950 김상연 2,820 김수정 3,730 김예지 8,940 김은영 4,710 김재
 성 1,850 김재우 5,600 김정호 3,100 김현진 4,850 김형조 10,700 남건호 4,780 박소연 2,710 박재욱
 4,520 박주안 11,330 박지선 3,400 박현석 3,780 서수빈 3,790 성건우 1,600 성상현 2,070 손병락
 5,190 송관호 3,190 신영훈 7,270 연양초등학교 17,470 이강렬 5,800 이경민 6,620 이경아 8,180 이선영
 2,820 이상재 12,580 이원정 55,340 이윤희 5,310 이장을 13,570 이재현 4,420 이현정 5,140 이희영
 8,830 임세영 3,500 장은진 36,610 전아연 9,270 정영호 1,090 정재희 1,580 정현모 2,920 정희진
 3,080 최준서 2,420) 김병훈 13,920 김소현 45,560 김영주 28,590 무명 19,420 이숙자 22,010

● 정읍

박주해 18,540 박천룡 18,200

● 청주

기홍진 27,590 김상래 27,240 김용식 25,550 박준자 27,790 신인순 26,350 신재순 19,050 연호석
 56,890 이나경 28,150 이원근 2,390 임병윤 24,670 최성진 62,010

● 해운대

8월분 273,300 강대업 21,380 강소담 32,800 김정현 23,250 무명 28,780 무명 25,940 무명 19,830 무
 명 16,910 무명 15,630 무명 27,500 무명 25,900 무명 47,850 박순옥 22,480 신진화 8,540 전영복
 30,170 정혜선 25,030 추병우 17,120 현정련 18,410

2006년 8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거리모금 현황

광주 1,373,440 대구 5,020,910 대전 6,295,080 동래 3,118,220 마산 5,625,978
 서울 5,926,096 울산 695,680 정읍 449,210 제천 222,130 청주 375,750 해운대 2,286,210
 뉴욕 535,663 북경 139,150 워싱턴 590,148 필리핀 1,318,875 LA 217,920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6년 8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인도후원회원

P0019890	강진영	P0018325	이부연	P0019736	박채규	P0017872	김경이
P0019167	강원성	P0020712	이선경	P0014125	배인환	P0015189	김기왕
P0020428	고유성	P0019895	이선애	S0020329	선덕사	P0003932	김남순
P0017872	김경이	P0019733	이연라	P0011104	성예기	P0016978	김동철
P0018377	김균병	P0014301	이용진	P0020227	손예원	P0008233	김명희
P0019854	김동욱	P0019815	이인정	P0020166	신기봉	P0004839	김문희
P0019837	김미경	P0018166	이현아	P0010015	심학순	P0003935	김미자
P0002800	김석용	P0017098	이홍아	P0019898	양근섭	P0016818	김상래
P0019094	김선옥	P0014719	이홍진	P0019842	양진자	P0002800	김석용
P0020533	김성민	P0019913	장미진	P0020429	여선자	P0019186	김석익
P0016758	김영희	P0019834	장조혜	P0015614	여정아	P0013842	김영길
P0019131	김영희	P0019834	전선혜	P0020671	오경효	P0016785	김영석
P0020730	김일우	P0019987	정강숙	P0016778	오춘석	P0019891	김영운
P0019055	김재규	P0020344	정미경	P0020635	오종복	P0014570	김영주
P0016816	김지영	P0020331	정연희	P0005028	유명규	P0020885	김옥희
P0018320	김지철	P0020228	정혜진	P0015352	윤영화	P0019055	김재규
P0018786	김진선	P0013152	조은연	P0020426	윤기정	P0017893	김정란
P0020683	김파두마월애	P0018525	조은형	P0016956	이효기	P0008117	김정심
P0019991	김효성	P0011858	지옥	P0020713	이미선	P0020850	김정호
P0019168	김효진	P0019568	진효언	P0018370	이병은	P0020463	김종혜
P0020304	남궁정인	P0003857	차명정	P0019899	이송희	P0020886	김종희
P0018742	노학래	P0016976	최금옥	P0019895	이용건	P0002854	김지현
P0010538	박금숙	P0019907	한금동	P0017440	이재석	P0014270	김홍보
P0011478	박남규	P0020686	한동선	P0020301	이종선	P0016808	남기철
P0020431	박라미	P0018571	허영숙	P0009574	이현숙	P0007111	노일순
P0018583	박라미	P0020443	황재석	P0020659	장동석	P0002881	마경소
P0006407	박봉규	P0003024	황재석	P0019913	장조혜	P0017828	박소영
P0020303	박성호	P0014534	김혜정인도모자보진	P0019834	전선혜	P0015664	박속은
P0018539	박수지			P0019987	정강숙	P0012197	박은우
P0020302	박영희			P0000112	정남식	P0017024	박정운
P0007640	박정순			P0020344	정미경	P0003242	박향선
P0020710	서영교	P0020000	강대경	P0007032	정세홍	P0017896	박혜수
P0020625	서채원	P0020442	고영성	P0007159	정순희	P0017137	배혜윤
S0020329	서태석	P0018051	김소담	P0020331	정연희	P0004889	백수현
P0020711	송기서	P0001761	김애경	P0020228	조혜진	P0017895	변순옥
P0017344	신은숙	P0020730	김재우	P0020427	조미숙	P0003250	서혜영
P0019129	엄향도	P0019055	김일규	P0013208	조신영	P0020272	송정화
P0020671	오경영	P0019985	김진근	P0013152	조은연	P0020166	신기봉
P0007242	윤경영	P0018786	김진선	P0003857	차명정	P0014011	신재순
P0020624	윤우근	P0010307	김진주	P0018459	천유근	P0018035	아름다운재단
P0018501	윤한경	P0019991	김진성	P0020672	최장희	P0020893	안유진
P0012618	이경섭	P0014571	김학현	P0015959	한장희	P0020281	에듀원
P0019816	이경화	P0008278	김현진	P0013291	한희수	P0002341	양창순
P0016956	이기원	P0018742	노학래	P0020443	황영희	P0010012	오동진
P0004661	이명희	P0010538	박금숙			P0015983	오미경
P0020713	이미선	P0018797	박금천			P0020398	용수영
P0018370	이병은	P0020431	박라영			P0003258	유수순
		P0019213	박우법	P0014296	곽영애	P0017474	유인철
		P0007640	박정순	P0014585	권소희	P0017892	유태중

북한어린이결연

북한개발후원

특별기부금 명단

2006년 8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해외후원금-미국 뉴욕

김택수/K & L Enterprises \$1200.00

해외후원금-미국 워싱턴

Son's Qulaity Food Company \$100.00	김기덕 \$120.00 이희자 북한어린이지원 \$24.00	Son's Qulaity Food Company \$100.00	류승목 \$144.00
--	--	--	--------------

해외후원금-미국 LA

윤소희 선봉아동병원 \$150.00	윤소희 인도지원사업 \$150.00	윤소희 북한돕기 \$150.00 박은숙 북한돕기 \$180.00	김명례 난민지원사업 \$300.00
------------------------	------------------------	--	------------------------

특별후원금

강은희 인도모자보건 100,000원	깨장모임 37차 일개 1,297,000원	최희일영가 30,000원	최순이 인도모자보건사업 1,000,000원
곽봉준 3,900,000원	박남규 100,000원	오미경 인도모자보건사업 40,070원	이규정 100,000원
구만석 북한돕기 200,000원	이삼주영가 북한어린이 58,700원	오천복 북한어린이돕기 100,000원	한영태 북한어린이영양식 60,000원
김동명 생일축하금 50,000원	배태열영가 북한어린이 625,200원	이동훈 수자타아카데미 100,000원	한희진 수자타아카데미 500,000원
김동옥 인도수자타아카데미 1,000,000원	배종옥 인도모자보건 1,000,000원	무기명 3,000,000원	홍희숙 청진아원내복보내기 50,000원
김석용 100,000원	석성순 인도모자보건 100,000원	이인표 50,000원	이종주 필리핀후원 3,000,000원
김원구 아프간돕기 50,000원	선덕사 북한어린이돕기 331,000원	이정환 100,000원	대광농장 필리핀후원 2,000,000원
김정준 제3세계후원 50,000원	선덕사 수자타아카데미지원금 1,000,000원	임남환 인도후원 500,001원	
김태형 인도우물파기 100,000원	심을택 북한후원금 100,000원	장선이 결핵퇴치 150,000원	
김파두마월에 제3세계후원 100,000원	심을택 생전예수재기도비 40,000원	주관식 100,000원	
김혜정 인도모자보건 30,000원		최말순 필리핀 사업비 700,000원	
		최문숙 결핵퇴치 150,000원	

인도네시아 구호금 추가명단

최정숙 200,000원	황선영 10,000원	윤희자 11,000원	정아르미 10,000원
무주상 200,000원	강순옥 10,000원	최해옥 100,000원	김영주 67,000원
정승아 50,000원	류숙희 20,000원	최근대 30,000원	아기북친구들 200,000원
조규현 30,000원	박길미 20,000원	정정숙 30,000원	
서지현 30,000원	최정숙 10,000원	안춘희 10,000원	
구경숙 10,000원	류동훈 200,000원	최정숙 200,000원	

지난호 정정내용

한영태 비료보내기 60,000원은 북한어린이 영양식돕기입니다.

지난호 특별후원금 누락내용

한영태 인도어린이 500,000원	한영태 북한어린이 60,000원	한영태 인도모자보건 (선망조상은행가사) 1,200,000원	푸른산악회 인도모자보건 103,000원
-----------------------	----------------------	--	--------------------------

학반도 수재극호금명단

(2006년 8월 16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한 국

강대업	100,000원	김정옥	100,000원	김성애	10,000원	김주철	30,000원
강명희	35,000원	김준형	10,000원	김성조	10,000원	김중수	100,000원
강모	30,000원	김진호	10,000원	김세리	15,000원	김지영	50,000원
강무철	10,000원	김진욱	30,000원	김송이	20,000원	김지태	15,000원
강문영	5,000원	김진홍	20,000원	김수열	100,000원	김지현	10,000원
강병주	100,000원	김춘호	10,000원	김수정	50,000원	김지현	20,000원
강복웅	50,000원	김경미	10,000원	김속호	30,000원	김지현	30,000원
강신준	10,000원	김광원	100,000원	김순기	10,000원	김지혜	20,000원
강양중	10,000원	김금화	20,000원	김순란	200,000원	김지효	50,000원
강윤정	100,000원	김기석	50,000원	김순영	100,000원	김진호	10,000원
강은정	30,000원	김기수	1,000,000원	김순영	20,000원	김창수	10,000원
강은주	10,000원	김기영	100,000원	김순자	10,000원	김춘애	10,000원
강은희	100,000원	김기왕	10,000원	김슬기	15,000원	김태연	40,000원
강창구(성윤기획)	20,000원	김남수	640,000원	김승애	10,000원	김태정	100,000원
강호섭	10,000원	김남숙	10,000원	김승지혜	10,000원	김태희	20,000원
강연영	5,000원	김내만,김분이(영가)	50,000원	김애경	150,000원	김태희	15,000원
강후원	50,000원	김대연	10,000원	김애리	10,000원	김하승	20,000원
서울경트회	300,000원	김대환	15,000원	김애심	300,000원	김현경	10,000원
고명기	10,000원	김덕엽	20,000원	김애자	30,000원	김현자	100,000원
고연수	20,000원	김동관	30,000원	김영선	10,000원	김현주	100,000원
고경희	30,000원	김동원	100,000원	김영숙	10,000원	김현준	300,000원
고미숙(대구)	75,000원	김동진	455,000원	김영순	50,000원	김형준	20,000원
고명우	55,000원	김동철	20,000원	김영운	10,000원	김형진	10,000원
고상현	20,000원	김두원	400,000원	김영일,정연이	10,000원	김혜경	50,000원
고애란	300,000원	김동산	10,000원	김영자	20,000원	김혜경	30,000원
고영목	1,000,000원	김명숙(관음행)	150,000원	김옥래	10,000원	김호상	50,000원
곽영술	10,000,000원	김명옥	20,000원	김옥정	10,000원	김홍보	100,000원
곽영화	100,000원	김명희	20,000원	김왕건	10,000원	김환기	1,000,000원
곽희경	10,000원	김문희	50,000원	김원구	50,000원	김희라	10,000원
권문희	10,000원	김미량	50,000원	김월금	30,000원	김희선	50,000원
권소희	10,000원	김미선	50,000원	김은남	50,000원	나수정	30,000원
권대순	20,000원	김미숙	100,000원	김은숙	15,000원	남기철	10,000원
권대순	5,000원	김미숙	10,000원	김은진	20,000원	남정숙	10,000원
권명숙	50,000원	김미호	30,000원	김은하	10,000원	남현승	5,000원
권명숙	50,000원	김민영	200,000원	김인덕	10,000원	남현정	5,000원
권미순	100,000원	김민옥	100,000원	김인숙, 양혜선	1,000,000원	남경봉	80,000원
권순범	10,000원	김민정	500,000원	김인순	50,000원	남연우	5,000원
권영미	100,000원	김병삼	50,000원	김인희	10,000원	남정희	20,000원
권정구	50,000원	김병현	10,000원	김일운	30,000원	노경옥	10,000원
권태진	2,000,000원	김복덕	100,000원	김재규	100,000원	노명신	100,000원
권혜진	50,000원	김봉준	100,000원	김점남	5,000원	노승용	100,000원
길순용	86,000원	김생길	10,000원	김점선	50,000원	노영숙	15,000원
길주옥	30,000원	김석용	100,000원	김정락	300,000원	노혜숙	20,000원
김민석	20,000원	김선경	100,000원	김정수	1,000,000원	노미라	30,000원
김상래	10,000원	김선옥	30,000원	김원정숙	10,000원	류홍기(정미숙)	30,000원
김수영	20,000원	김선우	5,000원	김정임	50,000원	마경숙	1,000,000원
김영아	20,000원	김선정	20,000원	김종숙	20,000원	명선해양산업(주)	300,000원
김응례	10,000원	김성란	20,000원	김종익	10,000원	무기명	100,000원

한반도 수재구호금명단

(2006년 8월 16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무명명	15,000원	박정일	100,000원	송영화	100,000원	오재규	20,000원
무명명	500,000원	박종후	50,000원	송유은	15,000원	오점식	50,000원
무주상	1,044,000원	박준길	100,000원	송재천	10,000원	옥해수	100,000원
무주상	200,000원	박지진	10,000원	송하경	10,000원	옥용수	10,000원
무주상	30,000원	박진섭	600,000원	송현자	70,000원	우영옥	10,000원
문길련	10,000원	박진우	50,000원	송형기	100,000원	원광순	45,000원
문영봉	100,000원	박진현	500,000원	신종석	10,000원	명명	100,000원
문정자	10,000원	박진희	5,000원	신강희	20,000원	원유진	50,000원
문학술·홍순장	500,000원	박치옥	10,000원	신경승	50,000원	유성운	10,000원
문효정	15,000원	박해리	50,000원	신경훈	10,000원	유인철	10,000원
민안자	10,000원	박현이	30,000원	신단아	100,000원	유근창	50,000원
밀가루1포 후원	10,000원	박승태	100,000원	신도철재	200,000원	유미경	100,000원
박다숨	10,000원	배은자	10,000원	신동국	10,000원	유수령	20,000원
박다운	10,000원	배지영	20,000원	신동수	20,000원	유승영	30,000원
박범열	5,000원	백경순	20,000원	신동열	10,000원	유인자	1,020,000원
박옥순	20,000원	백동현	5,000원	신명순	200,000원	윤귀예	5,000원
박용범	10,000원	백동환	5,000원	신성애	15,000원	윤학수	10,000원
박형숙	10,000원	백성희	800,000원	신성희	100,000원	윤계현	20,000원
박화자	20,000원	백영일	5,000원	신영애	100,000원	윤금자	10,000원
박근금	150,000원	백용균	1,000,000원	신영희	30,000원	윤남용	10,000원
박금주	10,000원	법륜	10,000원	신윤정	1,050,000원	윤여영	30,000원
박덕환	100,000원	변순옥	20,000원	신인균	100,000원	윤여창	50,000원
박돌남	20,000원	변우식	200,000원	신인순	50,000원	윤영화	10,000원
박명숙	20,000원	김명렬	10,000원	신정규	10,000원	윤옥순	40,000원
박명숙	20,000원	변형석	100,000원	신정열	10,000원	윤형식	10,000원
박명숙	50,000원	보살단	500,000원	신해림	5,000원	윤정아	25,000원
박명주	400,000원	북한수해돕기	10,000원	실상화(가족)	50,000원	윤정희	15,000원
박문심	10,000원	사공옥숙	15,000원	심규목	100,000원	윤정희	100,000원
박미성	90,000원	서동령	10,000원	심미경	10,000원	윤채희	200,000원
박미숙	10,000원	서동영	320,000원	안정화	10,000원	윤해숙	30,000원
박법숙	50,000원	서동찬	500,000원	안동환	10,000원	윤현순	10,000원
박분남	10,000원	서예량	30,000원	안병걸	60,000원	이강성	10,000원
박새남	24,000원	서창규(박금진)	60,000원	안병주	300,000원	이경자	10,000원
박선미	10,000원	서혜정	10,000원	안상준	20,000원	이경호	10,000원
박선영	10,000원	서혜정	50,000원	안선주	30,000원	이명숙	10,000원
박선중	5,000원	서혜진	10,000원	안수연	20,000원	이병철	20,000원
박성미	10,000원	서흥석	20,000원	안혜실	20,000원	이수부	10,000원
박수자	50,000원	석명호	10,000원	양수지	30,000원	이숙희	10,000원
박순도	10,000원	성윤숙	20,000원	양승원	20,000원	이숙희	100,000원
박연실	500,000원	성소석	15,000원	양은지	10,000원	이승숙	10,000원
박영기	30,000원	성소남	15,000원	양재희	30,000원	이시원	30,000원
박영순	20,000원	손경희	15,000원	양정훈	20,000원	이영진	10,000원
박영애	5,000원	손순주	50,000원	양창순	50,000원	이옥자	40,000원
박영옥	10,000원	손예원	10,000원	엄성민	100,000원	이윤복	200,000원
박영준	15,000원	손윤호	20,000원	연지우(제국직원일동)	40,000원	이은선	10,000원
박윤규	100,000원	손창원	100,000원	오혁진	5,000원	이인하	10,000원
박은숙	20,000원	손해숙	50,000원	오금실	20,000원	이준석	10,000원
박인실	15,000원	손현숙	20,000원	오문택	200,000원	이택수	10,000원
박인영	10,000원	손혜련	300,000원	오미연	10,000원	이향운	50,000원
박정선	50,000원	송민령	10,000원	오숙정	50,000원	이경녀	30,000원
박정선	10,000원	송부순	10,000원	오인숙	60,000원	이경분	20,000원

학반도 수재극호금명단

(2006년 8월 16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이 경 속	100,000원	이 정 자	20,000원	장 현 미	100,000원	지 원 종	20,000원
이 경 자	14,000원	이 정 희	267,000원	장 현 주	10,000원	지은아노증자	300,000원
이 경 학	5,000원	이 종 구	100,000원	재일코리아연합	1,136,23원	차 용 백	30,000원
이 경 희	30,000원	이 종 숙	50,000원	전 운 속	40,000원	채 옥 영	30,000원
이 경 회	100,000원	이 종 애	10,000원	한국보건과학연구소	140,000원	천 정 속	10,000원
이 근 만	100,000원	이 종 준	20,000원	전 병 득	15,000원	청 안 사	1,000,000원
이 금 봉	370,000원	이 주 현	100,000원	전 병 찬	30,000원	최 명 속	10,000원
이 금 주	50,000원	이 준 결	30,000원	전 선 혜	15,000원	최 성 진	155,000원
이 기 해	100,000원	이 지 영	25,000원	전 영 호	50,000원	최 옥 순	10,000원
이 나 미	30,000원	이 지 원	200,000원	전정환, 이진아	50,000원	최 경 순	30,000원
이 능 수	10,000원	이 지 은	10,000원	정 상 만	150,000원	최 규 원	10,000원
이 동 수	50,000원	이 진 갑	50,000원	정 경 애	20,000원	최 근 대	50,000원
이 미 순	20,000원	이 진 우	5,000원	정 경 화	33,000원	최 대 원	10,000원
이 미 영	100,000원	이 찬 옥	10,000원	정 광 윤	10,000원	최 란	50,000원
이 병 래	100,000원	이 채 근	50,000원	정 귀 조	150,000원	최 말 속	10,000,000원
이 병 일	30,000원	이 최 현 정	50,000원	정 규 회	50,000원	최 명 속	20,000원
이 상 수	100,000원	이 태 화	165,000원	정 삼 몽	10,000원	최 미 영	100,000원
이 상 순	10,000원	이 판 희	80,000원	정 상 열	100,000원	최 미 희	100,000원
이 상 입	30,000원	이 학 기	5,000원	정 선 화	15,000원	최 민 아	10,000원
이 석 정	45,000원	이 한 길	100,000원	정 순 희	15,000원	최 병 무	20,000원
이 선 주	30,000원	이 한 별	150,000원	정 양 수	45,000원	최 범 일	30,000원
이 선 희	100,000원	이 현 옥	30,000원	정 영 경	10,000원	최 복 순	10,000원
이 성 입	100,000원	이 현 주	10,000원	정 영 미	10,000원	최 서 인	100,000원
이 성 희	10,000원	이 현 주가족	30,000원	정 영 부	10,000원	최 성 진	10,000원
이 소 순	56,000원	이 형 기	10,000원	정 영숙(2)	10,000원	최 순 이	100,000원
이 수 일	10,000원	이 혜 경	60,000원	정 영 희	50,000원	최 순 희	20,000원
이 숙 기	20,000원	이 혜 진	10,000원	정 의 평	100,000원	최 신 옥	20,000원
이 숙 영	10,000원	이 희 수	100,000원	정 인 권	50,000원	최 영 주	500,000원
이 영 순	10,000원	이 희 자	10,000원	정재영, 정혜경	60,000원	최 옥 자	10,000원
이 양 기	20,000원	임 민 규	10,000원	정 정 속	10,000원	최 옥 석	25,000원
이 양 선	20,000원	임 성 희	300,000원	정지은북한수재	300,000원	최 윤 희	10,000원
이 양 자	30,000원	임 순 옥	30,000원	정 채 규	20,000원	최 은 경	50,000원
이 양 속	10,000원	임 양 호	29,000원	정 현 속	15,000원	최 재 두	50,000원
이 영 애	210,000원	임 연 옥	20,000원	정 혜 진	30,000원	최 정 속	100,000원
이 영 주	10,000원	임 영 광	110,000원	조 광 천	50,000원	최 정 순	100,000원
이영주자모회	50,000원	임 정 이	10,000원	조 금 연	50,000원	최 진 원	60,000원
이 용 자	10,000원	임 춘 자	15,000원	조 대 계	100,000원	최 현 주	5,000원
이 우 희	50,000원	임 현 진	10,000원	조 미 순	2,500,000원	최 흥	10,000원
이 운 학	10,000원	임 형 근	10,000원	조 선 경	20,000원	추경식영가	1,000,000원
이 원 환	10,000원	임 회가족임동	280,000원	조 용 호	500,000원	추 진 훈	10,000원
이 유 미	10,000원	장 승 희	10,000원	조 유 현	100,000원	탁 병 너	10,000원
이 은 경	30,000원	장 금 옥	30,000원	조 은 순	10,000원	피 윤 희	10,000원
이 은 경	30,000원	장 복 실	1,000,000원	조 은 혜	100,000원	하 중 주	10,000원
이 은 속	15,000원	장 서 윤	100,000원	조 정 수	20,000원	하 현 주	10,000원
이 은 희	200,000원	장서해,장선자,장철용	110,000원	조 주 현	15,000원	한 귀 분	20,000원
이 재 회	50,000원	장 선 옥	60,000원	조 창 속	10,000원	한 금 세	20,000원
이재희(대구법당)	50,000원	장 선 희	10,000원	조 협	10,000원	한반도에(김명학)	50,000원
이 정 기	5,000원	장 성 호(서울)	100,000원	조 혜 옥	10,000원	한 상 태	150,000원
이 정 립	50,000원	장 소 현	5,000원	중우스님	200,000원	한 영 태	3,000,000원
이 정 속	200,000원	장 업 신	10,000원	주 관 식	100,000원	한 옥 주	20,000원
이 정 옥	30,000원	장 태 균	100,000원	지 명 자	100,000원	한울타리	300,000원

한반도 속재구호금명단

(2006년 8월 16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한정훈	5,000원	현정희	10,000원	홍진숙	15,000원	황주용	10,000원
한지훈	5,000원	현희련	50,000원	황문현	20,000원	황현심	30,000원
한희순영가	50,000원	홍경희	300,000원	황복현	20,000원	희열광	50,000원
한희진	100,000원	홍어회집	10,000원	황명훈, 황지훈	30,000원		
한희진	500,000원	(주)홍인이씨엠1	2,000,000원	황선미	10,000원		
허안숙	50,000원	홍옥선	25,000원	황선영	10,000원		
현영실	10,000원	홍장희	15,000원	황선옥	110,000원		

미국-콜럼버스

Denny Kim	\$ 11	김일숙	\$ 200	김효선	\$ 50	김기택	\$ 100
김준자	\$ 500						

미국-샌프란시스코

박인규 \$20,000

미국-뉴욕

임선희	\$1,000	임재연	\$ 100	김명혜	\$ 500	최경숙	\$ 100
안성순	\$ 20	박승용	\$ 100				

미국-LA

박승용	\$ 100	임재연	\$ 100	안성순	\$ 20	이남건	\$ 50
-----	--------	-----	--------	-----	-------	-----	-------

독일-두이스부르크

전미자	100유로	박길순	50유로	이은희	20유로
-----	-------	-----	------	-----	------

독일-베를린

박영희	400유로	유순옥	100유로	최영숙	80유로
-----	-------	-----	-------	-----	------

독일-뮌헨

이창원 120유로 수미쉬드 200유로

해외모금액

미국 워싱턴정토회	\$927	독일 베를린 서경식 교수	모금 151유로
미국 L.A정토회	\$462	독일 베를린정토포법당	384유로
미국 콜럼버스정토회	\$75	독일 뮌헨정토포법회	340유로
독일 두이스부르크정토포법회	180유로	중국 북경법회	1150위안

북한 내복보내기 기부금 명단

(2006년 9월 1일부터 2006년 10월 15일까지)

강 대 업	50,000원	김 문 희	5,000원	김 지 성	10,000원	박 진 현	200,000원
강모금(임은숙)	30,000원	김 미 숙	10,000원	김 지 성	10,000원	박 향 선	10,000원
강 순 덕	20,000원	김 미 영	10,000원	김 지 영	20,000원	박 향 선	10,000원
강 양 중	20,000원	김 미 자	10,000원	김 진 옥	10,000원	박 현 석	10,000원
강 인 호	10,000원	김 봉 주	25,000원	김 진 홍	10,000원	박 현 석	10,000원
강 정 숙	10,000원	김 상 래	5,000원	김 태 순	10,000원	박 혜 정	5,000원
강 현 숙	10,000원	김상형김상우	10,000원	김 하 나	100,000원	박 혜 정	5,000원
고 귀 선	5,000원	김 석 춘	5,000원	김 혜 원	30,000원	박 화 숙	10,000원
고 귀 선	5,000원	김 성 란	10,000원	김 흥 보	5,000원	배 병 훈	5,000원
고미숙(구미)	100,000원	김 성 탁	5,000원	남 기 철	10,000원	배 중 수	5,000원
공 원 란	100,000원	김 성 희	5,000원	노 일 순	5,000원	배 혜 윤	10,000원
곽 영 애	5,000원	김 숙 임	5,000원	노 일 순	5,000원	백 운 찬	10,000원
구 만 석	30,000원	김숙희(은평법회)	1,000,000원	노 태 곤	70,000원	백 운 찬	10,000원
구 미 영	5,000원	김 순 영	50,000원	동읍사랑(전문포)	420,390원	법 률 행	5,000원
구 은 용	5,000원	김 아 진	10,000원	류 근 희	250,000원	변 순 옥	30,000원
구 은 용	5,000원	김 애 자	10,000원	마 경 숙	181,000원	변 순 옥	30,000원
구 현 주	10,000원	김 연 정	5,000원	마 기 영	50,000원	서 대 하	10,000원
권 미 순	50,000원	김 영 길	50,000원	무 기 명	10,000원	서 예 경	50,000원
권 소 희	40,000원	김 영 석	100,000원	무 명	56,000원	서 지 현	10,000원
권순범	20,000원	김 영 숙	10,000원	무 명	15,000원	서 혜 정	10,000원
권순범	20,000원	김 영 아	10,000원	무 명	5,000원	서 혜 정	10,000원
권 현 정	10,000원	김 영 옥	10,000원	무 주 상	20,000원	성 기 명	10,000원
기 덕 규	100,000원	김 영 운	10,000원	문 길 련	25,000원	송 부 순	10,000원
기 원 규	100,000원	김 영 운	10,000원	민 경 근	10,000원	송 영 화	50,000원
기 흥 진	10,000원	김 영 은	10,000원	민 경 름	10,000원	송 화 자	20,000원
김 경 이	100,000원	김 영 주	10,000원	박 경 애	5,000원	신 금 예	10,000원
김 계 순	5,000원	김 영 주	10,000원	박 경 애	5,000원	신 동 현	1,000,000원
김 국 한	15,000원	김 옥 희	100,000원	박 금 숙	50,000원	신 재 순	10,000원
김근식(이정민)	150,000원	김 용 휘	10,000원	박 보 경	5,000원	실 상 행	100,000원
김 금 자	5,000원	김 은 숙	10,000원	박 보 경	5,000원	실 상 화	20,000원
김 기 왕	10,000원	김은숙(지성월)	100,000원	박 소 영	15,000원	안 동 환	10,000원
김 기 왕	10,000원	김 응 래	5,000원	박 수 현	10,000원	안 동 환	10,000원
김 남 순	300,000원	김 일 윤	10,000원	박 숙 경	10,000원	안 민 정	3,000원
김 남 훈	10,000원	김 일 윤	10,000원	박 숙 경	10,000원	안 성 화	50,000원
김 대 희	100,000원	김 재 윤	3,000원	박 속 희	5,000원	안 소 진	5,000원
김 동 연	50,000원	김 접 남	25,000원	박 순 도	5,000원	안 유 진	5,000원
김 동 철	10,000원	김 정 란	5,000원	박 시 동	5,000원	여 수 연	10,000원
김 동 철	10,000원	김 정 란	5,000원	박 영 기	20,000원	연 혁 진	10,000원
김말여(이현아)	100,000원	김 정 심	10,000원	박 영 숙	5,000원	오 미 경	5,000원
김 명 렬	5,000원	김 정 자	5,000원	박 옥 순	20,000원	용 수 진	5,000원
김 명 수	10,000원	김 정 자	5,000원	박 일 수	10,000원	용 수 진	5,000원
김명숙(무애자)	100,000원	김 정 호	10,000원	박 일 수	10,000원	우 도 영	5,000원
김 명 희	20,000원	김 정 호	10,000원	박 정 운	10,000원	우 도 찬	5,000원
김 명 희	20,000원	김 중 혜	10,000원	박 정 운	10,000원	울산정교회	121,530원
김 문 희	5,000원	김 중 희	5,000원	박 진 경	20,000원	유 미 숙	10,000원

북한 내복보내기 기부금 명단

(2006년 9월 1일부터 2006년 10월 15일까지)

유미연	10,000원	이운	50,000원	정복선	10,000원	최선경영가극락왕생	
유영순	10,000원	이운선	5,000원	정복선	300,000원		300,000원
유영순	10,000원	이은주	10,000원	정복선	10,000원	최영남	10,000원
유재연	30,000원	이인하	10,000원	정선숙	10,000원	최옥순	5,000원
유재한	30,000원	이접순	5,000원	정선일	200,000원	최유리	30,000원
유태중	10,000원	이정미	5,000원	정순례	1,000,000원	최운숙	15,000원
유태중	10,000원	이정미	5,000원	정승아	25,000원	최재두	30,000원
윤명옥	10,000원	이정애	10,000원	정연심	5,000원	최정희	5,000원
윤미옥	10,000원	이정자	5,000원	정연이	5,000원	최황임	5,000원
윤영화	10,000원	이정희	5,000원	정영미	5,000원	칠원초등교100주년총동창회	
윤정희	10,000원	이종임	10,000원	정영미	5,000원		500,000원
윤정희	10,000원	이종임	10,000원	정영숙(2)	8,000원	태용우	5,000원
윤현순	5,000원	이종필	50,000원	정옥	10,000원	하정용	10,000원
은평법회	25,000원	이택수	10,000원	정인권	50,000원	한동우	10,000원
이강문	10,000원	이향준	5,000원	정인권	50,000원	한민정	5,000원
이건우	10,000원	이현정	30,000원	정재영	100,000원	한선우	10,000원
이경녀	30,000원	이현주	5,000원	정정숙	5,000원	한영태	100,000원
이경숙	30,000원	이현주	5,000원	정진호	10,000원	한영태	100,000원
이경숙	30,000원	이희자	10,000원	정혜경	100,000원	한세승	200,000원
이경자	10,000원	임선경	5,000원	정희정	5,000원	한전총북지사	전력공급팀
이경희	10,000원	임선경	5,000원	정희정	5,000원		70,000원
이광성	5,000원	장금옥	50,000원	제천한살림주부모임북한내복보내기		한지원	10,000원
이근세스님	10,000원	장덕만	10,000원		55,000원	한희진	5,000원
이금봉	30,000원	장삼동	40,000원	조덕희	100,000원	한희진	5,000원
이능수	10,000원	장삼동	40,000원	조미애	15,000원	함옥순	10,000원
이능수	10,000원	장성호	10,000원	조은순	10,000원	홍희숙	50,000원
이동기	10,000원	장성호	50,000원	조인숙	5,000원	황귀숙	70,000원
이동현	5,000원	장수경	10,000원	조춘희	5,000원	황기영	10,000원
이명자	10,000원	장수경	10,000원	조춘희	5,000원	황기영	10,000원
이무현	5,000원	장수연	10,000원	주문돈	10,000원	황덕우	20,000원
이범중	10,000원	장숙희	100,000원	지은아	30,000원	황상규	5,000원
이병철	20,000원	장숙희	100,000원	진숙자	50,000원	황상규	5,000원
이성수	5,000원	장승희	10,000원	진순자	20,000원	황선옥	300,000원
이성원	100,000원	장완수	10,000원	진순자	20,000원	황성숙	10,000원
이소순	25,000원	장원호	20,000원	차금애	5,000원	황지영	10,000원
이소순	25,000원	장진영	10,000원	차필선	10,000원	황지영	10,000원
이숙희	50,000원	전문표	100,000원	천성필	5,000원		
이순자	5,000원	전민재	10,000원	천정숙	10,000원		
이승목	30,000원	전영선	5,000원	최근대	20,000원	총 347건 13,307,920원	
이승숙	5,000원	전영선	5,000원	최덕,김정십	100,000원		
이양기	10,000원	정경희	10,000원	최병무	10,000원		
이양자	100,000원	정경희	10,000원	최병무	10,000원		
이연분	10,000원	정광조	5,000원	최복순	5,000원		
이옥자	5,000원	정남식	10,000원	최복순	5,000원		
이우희	130,000원	정미소	10,000원	최상노	20,000원		

라진·원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6년 9월 30일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6년 9월 30일 현재



* 회색으로 채워진 곳은 현재 지정기탁자가 부족한 곳입니다. 위의 유치원·탁아소에 지정해서 후원해 주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 단체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새롭게 후원해 주신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JTS 회원국에서 알려드립니다

● 명단 확인 바랍니다.

2006년 8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은행으로 성금을 보내주셨으나 주소나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후원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바랍니다. (입금일, 이름, 입금은행명 순)

*2회 이상 입금하신 분은 1회 내역만 실었습니다.

8/2	226856402 신한	8/18	김선미	농협	9/18	노명신	국민	8/4	북수해돕기 국민	
8/3	강대경(북한홍수피해지원) 국민	9/11	김선옥	농협	8/10	노미선	국민	8/5	북한수해긴급지원 국민	
8/3	강락원	국민	8/8	김성일	국민	8/7	노민정	국민	8/24	북한수해돕기 국민
8/16	강명순	국민	8/31	김세준	우리	8/10	노재성	농협	8/9	북한수해지원 국민
8/28	강성옥	하나	8/21	김송이	국민	9/6	도여민	국민	8/1	북한어린이돕기보시금 국민
8/25	강세환	조흥	8/24	김순실	국민	8/30	류은화	하나	8/8	북한올드와주세우 국민
8/14	강해	농협	8/7	김순정	국민	8/4	맹행일	국민	8/8	색즉시공 국민
8/7	강현주	농협	9/4	김승애	국민	8/27	무명	국민	8/31	성불하세요 국민
8/21	강후원	국민	8/16	김애숙	국민	9/27	무명	국민	8/10	손순호 의환
8/19	고병우	국민	9/21	김애심	국민	9/27	무명	국민	8/31	손순호 농협
8/1	곽형길	농협	8/5	김영선	국민	8/25	문희경	농협	9/5	손현숙 국민
8/16	광동중신명희 농협	8/7	김영숙	국민	8/3	미르다을	국민	8/2	송민철 국민	
8/21	권대현	외환	8/21	김영찬	조흥	8/4	민성복	국민	8/16	송재천 국민
8/10	권미조	국민	8/7	김영희	국민	8/18	밀가루포후원 국민	8/16	송진숙 농협	
9/6	권승숙	국민	8/4	김예나	국민	8/5	박기선	국민	9/6	송형기 국민
8/23	권연수	국민	8/26	김옥래	국민	8/21	박낙범	우체국	8/15	수재민돕기 국민
8/31	김갑순	농협	8/4	김유나	국민	8/4	박동원	농협	8/21	신경승 국민
8/14	김경란	국민	8/25	김윤희	국민	8/11	박명자	국민	8/21	신동호 국민
9/6	김경옥	농협	8/9	김은란	국민	8/1	박상아	농협	9/24	신성희 국민
8/7	김기환	농협	8/18	김인순	국민	8/10	박상준	국민	8/10	신순영 조흥
9/1	김덕엽	국민	8/16	김점순	농협	8/18	박새빈	국민	8/30	신현정 조흥
8/1	김도영	외환	8/9	김정선	국민	8/7	박선영	국민	8/9	신현희 국민
8/1	김도현	외환	8/11	김정현	국민	8/16	박순경	우체국	8/30	심규목 국민
8/7	김동욱	국민	9/26	김지현	농협	9/27	박식	국민	8/17	심정섭 국민
8/21	김동원	국민	8/7	김찬우	국민	9/5	박영선	농협	9/26	임호성 국민
8/3	김문식	국민	8/3	김창근	국민	8/28	박옥순	제일	9/26	양승원 국민
8/21	김문희	농협	8/31	김태님	농협	8/4	박정임	국민	8/25	여정에 우체국
8/28	김미경	국민	8/30	김현주	국민	9/3	박진희	국민	8/21	연미경 우체국
8/18	김미경	농협	9/14	김현준	국민	9/12	박해리	국민	8/7	오세현 국민
8/28	김미량	국민	8/9	김혜경	국민	8/28	배재석	외환	8/21	유상혁 국민
8/29	김민정	국민	8/2	김혜원	국민	8/14	백경희	농협	9/1	유숙이 국민
8/4	김민정	국민	8/28	김홍규	국민	8/3	백정애(수해성금) 국민	8/6	유인경 국민	
9/29	김민정	국민	8/5	김희영	국민	8/21	변성윤	농협	8/25	유희연 조흥
9/29	김선경	농협	8/4	김희준	국민	8/10	부대아카데미9기 국민	8/30	윤희주 하나	
9/5	김선경	농협	8/3	남궁정임	국민	8/28	부처님감사합니다 국민	8/30	윤정혜 국민	

JTS 회원국에서 알려드립니다

9/12 윤해숙 국민	8/29 이태희 국민	8/3 정은선 농협	8/21 최은경 국민
8/23 이경석 하나	8/8 이현미 우체국	9/4 정은선 농협	8/4 최지영 국민
9/1 이경선 농협	8/10 이화순 농협	9/19 정지원 국민	8/31 최태연 국민
9/27 이경원 농협	8/1 이효정 조흥	9/17 정지은부한수계 국민	8/30 최한운 국민
8/1 이남숙 국민	8/7 임봉이 국민	8/22 정진숙 우리	8/2 하효남 조흥
8/8 이동협이승은 국민	8/7 임소영 조흥	8/16 정현아 우체국	8/21 한만석 농협
8/7 이동훈 국민	8/2 임재목 국민	8/3 제3세계 조흥	8/26 한명기 국민
8/28 이만덕 하나	8/5 임재묵 국민	8/16 조명순 우체국	8/22 한반도에(김명학) 국민
9/13 이명옥 우리	8/30 임창숙 농협	9/8 조유현 국민	8/29 한장우 국민
8/3 이미란 국민	8/4 장경숙 하나	8/9 조은수 국민	9/4 한희순영가 국민
8/24 이미영 국민	8/16 장병대 농협	8/8 조현정 조흥	9/29 허인택 국민
8/7 이성애 우리	9/20 장설(내복) 국민	8/3 주복식 국민	8/22 허태윤 제일
8/22 이성욱 농협	8/10 장소희 국민	8/25 주용운 기업	9/7 혜륜 농협
8/8 이송희 국민	8/30 장진숙 조흥	8/21 지보사 국민	8/28 홍언년 국민
8/30 이양자 국민	8/16 장현련 농협	8/24 차규찬 국민	9/1 홍영길 농협
8/7 이연숙 우체국	8/9 장현주 국민	8/8 차윤실 국민	8/5 홍지영 국민
8/5 이옥경 국민	8/7 전우정 국민	8/25 최규원 국민	8/21 황현주 하나
8/28 이은숙 국민	9/13 정경애 국민	8/8 최동연 우체국	8/9 황희남 국민
8/7 이은순 국민	8/23 정막례장삼례 농협	8/10 최명임 조흥	8/5 힘내세요 국민
8/5 이정숙 국민	8/18 정비용 농협	8/27 최미영 국민	
8/5 이정희 국민	9/7 정상열 국민	8/25 최민아 국민	
8/18 이종구 국민	8/31 정순임 농협	8/23 최세지 국민	
8/17 이최현정 국민	8/7 정영숙 우체국	8/11 최순탁 국민	

● 명단 확인 바랍니다.

개인명의(예금주 : 최석호)로 된 JTS 통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명단에 계신 분들은 소식이 뒷면에 있는 구좌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 국민 086-21-0466-356
윤성희, 양태희, 김영자, 봉금례, 유상열
- 하나 103-230740-01104
한성희
- 농협 044-02-072021
석미경, 정환호, 변은아, 이주엽, 김상호, 유상완, 김수현
- 농협 100080-51-033509
김동숙
- 우리 430-07-075428
최용재
- 외환 093-19-24002-8
진영희

(사)한국JTS CMS 출금이체신청서 안내

1. CMS는 (사)한국JTS(이하 JTS)에서 정기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회원님들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약정된 후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입니다.
 2. 출금이체약관 동의서는 후원금 출금시 임의로 CMS 도용을 막고, 후원자와 JTS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3. CMS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은 후원금을 인출할 통장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후원자와 예금주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본 단체는 회원님과 약속한 출금 날짜 25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과 후원기간동안만 별도의 통지 없이 후원금을 인출할 것입니다.
 6. 정해진 기일에 인출이 없을 경우, 다음달에 CMS로 2달분 후원금을 인출하거나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인출하지 않습니다.
 7. CMS 신청은 출금이체약관에 후원회원 본인의 직인 혹은 서명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분은 출금이체 약관을 꼭 읽어 보시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입금시 계좌번호

예금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국민은행	086-01-0339-254
국민은행	086-01-0339-246
농협중앙	044-01-094677
우리은행	430-04-119833
외환은행	108-22-03140-0
제일은행	427-10-011141
조흥은행	348-01-111624
하나은행	103-230740-00104
신한은행	260-05-011808
기업은행	216-043061-04-013
우체국	013755-01-003667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돼지저금통)

CMS 출금이체 약관

1. 앞면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한국JTS)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6.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됩니다.
7. 출금이체 해지 요청시 동일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시 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문의 02-587-8992 / E-mail : jtsmember@jts.or.kr(담당자 : 정한정)